문화세계의 창조

교훈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경희대학교 대학주보사

서울캠퍼스(우 : 130-701)
서울 동대문구 회기동 1
☎(961)0095, (963)5849
FAX(962) 7718
수원캠퍼스(우 : 449-701)
경기도 용인군 구갈읍 서천리 1
☎(745)5702(교환 : 2056·2860)
직통 (0331)280-2056·2860
FAX (0331)281-6378

발행편집인 조영식
주간 이석우
편집장 이춘희
인쇄인 김준배

제1031호 〈주간〉 1993년 10월 25일 (월요일) THE UNIVERSITY WEEKLY (1955. 10. 27 제3종우편물(가)급인가 / 1964. 1. 동록번호 나-12) (1955년 5월 12일 창간) 【1】

'범 경희인의 날' 무산

총장 선출문제 포함 행사내용 교수협·총학간 이견

서울캠퍼스 총학생회가 학내 재단체에게 제안한 '범경희인의 날'이 행사내용에 관한 총학과 교수협의회간의 이견으로 무산됐다.

전 경희인이 참가한 자리에서 학교의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취지로 총학이 제안한 범경희인의 날은 오는 29일 치르기로 학교학생측이 잠정합의한 상태였다.

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모임에는 학교측 책인자와 교수협의회, 총동창회, 직원노조, 총학이 참가하기로 하고 지난 13일 과 19일 두차례에 걸쳐 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총학은 범경희인의 날에 조영식총장의 명예퇴임식을 치른 후 차기총장선출방식에 관한 합의안을 선포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총동창회와 교수협의회는 총장선출문제가 행사내용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2차례의 회의동안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이에 총학은 행사준비모임과는 별도로 총장선출문제를 협의하는 3자협의체를 제안했으나 교수협의회측은 오는 11월3일 교수협의회 비상총회를 통해 논의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교수협의회의 참가없이 범경희인 날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학교측은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 사실상 오는 29일 예정되었던 범경희인의 날 행사는 무산된 셈이다.

교수협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총학은 지난 21일 학내 언론사 기자들과 가진 회견에서 교수, 학생, 직원 3자협의체의 합의가 없는 총장선출일정은 반대한다는 종래의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앞으로 차기총장선출의 교수협의회 일정에 대해 고경식(문리대 국문)교수협의회 회장은 "밝힐 수 없다"고 말하고 "총회의 결정에 따라 모든 일정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교수협의회가 총회를 거쳐 총장선출방식과 일정을 결정짓게 된다면 이 문제에 대한 3자간의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아나 총학후보도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선출과정에 참여를 요구하는 학생과 노조측과의 의견조정을 위해서는 커다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수원 '학교사랑 대청소'

수원캠퍼스에서는 지난 19일을 '학교사랑 대청소의 날'로 하여 교무위원과 사무직원이 주축이 되어 학내 대청소를 하였다.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작년까지 교직원 체력단련수련회로 해오던 것을 진환한 이행사는 실천행사에서 조영식 학원장이 연설을 하고, 본행사로 청소를 한 후 2호관 학생식당에서 다과회를 가졌다.

'체대학장배 수영대회'

체육대학 수영부가 주최하는 '제4회 경희 체육대학장배 수영대회'가 30일 오후 1시 서울캠퍼스 체육대학 수영장에서 개최된다.

경기종목은 50m 자유형, 배영, 접영, 평영이며 참가희망자는 29일 오후 5시까지 체육대학 수영부에게 신청해야 하고 각종목 우승자에게는 트로피와 기념품이 각각 증정된다.

이번 대회는 사회체육의 한 분야인 수영을 통한 건전한 대학문화 확립을 취지로 하고 재학생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학술활동 활성화위한 대학원 학술제

오늘부터 연합 심포지움과 초청강연회등

우리학교 대학원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학술제 연합심포지움과 초청강연회 등의 내용으로 오늘부터 29일까지 열린다.

〈날짜, 시간표 참조〉

대학원 학술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열리는 이번 학술제의 연합심포지움은 '근대성과 주체문제'를 주제로 포스트모더니즘의 인간관과 그 방법론에 대해서 토론하게 된다.

연합심포지움은 오는 29일 오후 2시부터 본관 2층 대회실에서 열리며 국문·물리·경학·정외·미술학과가 참가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제는 2차례의 초청강연이 마련되는데 우리학교 영문과 도정일 교수의 강연은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국적 수용'이라는 주제로 26일 오후 2시 도서관 세미나실에서 열린다. 또한 재야운동가인 김근태('새로운 정치조직을 논의하는 전국모임'대표)씨가 초청되어 '문민정부의 개혁과제와 전망'으로 강연하여 정권의 개혁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자리를 갖게된다.

한편, 학술제 첫날인 25일에는 김지하씨의 '오적'을 판소리로 창작한 임진택(전 민예총 사무국장)씨가 초청되며 또한 음악학과와 무용학과의 통합예술제는 29일 체육대학 무용과 연습실에서 있을 예정이다.

	행사내용		시간·장소
25일(월)	창작판소리 '오적'	임진택 (전 민예총 사무국장)	오후 3시 무용과 연습실
26일(화)	강연회 : 포스트모더니즘의 한국적수용	도정일 (문리대·영문과)교수	오후 2시 도서관세미나실
28일(목)	강연회 : 문민정부의 개혁과제와 전망	김근태	오후 2시 도서관시청각실
29일(금)	연합심포지움	5개학과	오후2시 본관2층대회실
	통합예술제	무용·음악학과	오후 4시 무용과연습실

한의대 오늘부터 정상수업

학기제 학사일정 교육부 허가시 유급없을듯

1백34일간 수업거부를 해온 한의대생들이 지난 22일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집단유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일단 비껴갈 전망이다.

전학련은 19일 실시한 투표에서 총 재적인원의 67%가 참가하여 73%가 찬성하는 결과가 나옴에따라 일제히 수업에 복귀하기로 했다.

본교 한의대 기획부장 이승우(본·1)군은 그동안 투쟁의 결과로서 한약사제도라는 어느 정도의 성과도 있었고 "수업거부가 보사부를 위시한 대정부 투정이었던 만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간이상 지금은 수업에 임할 때"라며 수업재개의 이유를 밝혔다.

한의대의생학 하년제로 학사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교육부는 지난 17일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경우 1년 유급을 막기위한 학기제도의 학식개정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본교 한의대생들은 22일부터 일부 수업재개를 하여 오늘부터는 정상적인 2학기 학사일정에 들어가게 된다. 한의대 개강일이던 9월20일부터 10월21일까지는 휴강으로 처리된다.

법정 16주 수업일수는 내년 1월8일에야 채워지게되며 23학점 정도의 1학기 미취득학점은 올 겨울과 계절학교를 이용하여 취득하기로 했다.

동짝마감은 26일까지이며 22일까지 접계된 바로는 60%가 등록을 마쳤다.

교내장학 3천여명 19억3백만원 수혜

92년 대비 3백여만원 감소

9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지급현황이 발표되었다.

양캠퍼스의 학생처발표에 따르면 총 19억3백53만4천7백60원(서울 10억5천9백39만8천9백65원, 수원 8억4천4백23만5천7백95원)이 총 3천3백59명(서울 1천7백2명, 수원 1천6백57명)에게 지급됐다.

이번 장학금은 지난해보다 3백여만원 감소했으나 입시장학금이 92년보다 2억2천여만원이 감소되고 그대신 성적장학금이 1억4천여만원 증가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각종 장학재단과 기업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는 대외장학의 경우, 총 4억8백31만3천1백25원(서울 2억8천7백88만5천7백25원, 수원 1억2천42만7천4백원)이 지급되었으며 수혜인원은 총 5백79명(서울 4백55명, 수원 1백24명)으로 드러났다.

주요 장학금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안은 양캠퍼스 총 수혜인원.

[교내장학금]▲총장장학 : 서울 없음, 수원 2백69만2천9백원(2명) ▲입시장학 : 서울 1억7천8백4만6천50원, 수원 4천6백37만3천4백50원(1백55명) ▲보훈장학 : 서울 7천7백57만4천75원 수원 6천2백26만7백20원(2백2명) ▲경희가족장학 : 서울 5천5백33만6천1백원, 수원 9천7백7만1백원(1백18명) ▲체육심기장학 : 서울 1억4천9백22만5천원, 수원 1억9천7백40만7천원(2백75명) ▲우수장학 : 서울 2억8천1백33만7천4백50원, 수원 1억5천8백54만5천4백50원(6백60명) ▲모범장학 : 서울 1억4천2백11만원, 수원 1억7천4백30만8백25원(1천2백4명) ▲살림기장학 : 서울 7천1백78만6천5백원, 수원 6천5백68만5천3백50원(3백7명) ▲근로장학 : 서울 4천7백40만2백원, 수원 1천1백60만원(1백92명)

[대외장학]▲한국지도자육성재단 : 서울 5백97만7천3백원, 수원 6백23만6천50원(10명) ▲한국장학 : 서울 3천2백33만5천8백원, 수원 2천3백87만5천5백50원(45명) ▲경수장학회 : 서울 9백68만8천원, 수원 6백11만원(13명) ▲충동창회 : 서울 7백80만원, 수원 7백20만원(50명)

학생생활 연구소 영상교육 실시

올바른 성지식 보급위해 11월부터

수원캠퍼스 학생생활연구소는 오는 11월 중순부터 비디오 영상지료를 상영한다.

이번에 상영하게 될 자료의 주제는 1. 임신에서 출산까지의 태아와 산모의 신체변화 2. 약물 마약 복용과 음주 흡연의 실상과 성병 3. 비혼모 문제 4. 낙태 5. 올바른 피임법(기구 피임법과 신체 주기를 이용한 자연피임법) 등 다섯가지이며 학생생활 연구소 사무실에서 주1회 상영하고 매주 이 주제들을 차례로 상영하게 된다.

학생생활연구소는 지난 8월 중순경 이번 영상자료상영을 위한 비디오 및 텔레비젼을 구입하였으며 현재 마리아 수녀회, 대한가족계획협회 등에서 영상자료를 수집중에 있다. 또한 기존에 마련할 계획이었던 비디오를 통한 모의 면접시험자료는 자료구성에 투달여가 소요되므로 비디오 촬영및 구성등 일정한 준비기간을 거친뒤 다음 학기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총학 총장선출안 확정

자격심사위 후보선출, 교수협 직선제로

서울캠퍼스 총학생회는 총장자격심사위원회에서 총장예비후보자를 신출하여 교수협의회의 직선으로 총장을 선출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학생측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내용은 총학이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제2차 의견개진운동을 통해 반영된 1천3백86명의 학생들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먼저 차기총장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을 물은 질문에 '학교를 경영할 수 있는 행정능력과 유능한 교수채용의 결단력'을 물은 학생이 3백82명으로 가장 많았고 '과감한 투자와 교육재정확보 능력'이라고 답한 학생도 3백34명이나 되었다.

이같은 결과는 학교발전을 위해서는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문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총장선출의 방식을 묻는 질문에는 6백82명이 총장자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꼽았고 1백70명이 총장예비후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뽑았다.

학생참여방도에 대한 답으로서는 '후보선정위원회나 자격심사위원회를 참가하는 방안'이 또한 6백7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총장후보의 자격을 심사하는 등 총장선출과정에 참여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수원 1백30톤 사용가능 물탱크공사

도서관 완공시 용수부족 현상 대비

수원캠퍼스 관리과는 학교내 모든 건물에 원활한 물공급을 하기위해 산업대학 실습농장 입구에 물탱크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1억원의 예산책정이 되어있는 이 공사는 지난 6일 착공하여 11월 30일 완공예정이며 우신건입이 맡아 시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터파기 작업을 시행하있으며 이후 기초작업과 철근작업을 포함한 방수작업을 한다.

이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의 효과는 신갈호수면에 있는 2호정에서 압력부족으로 퍼내지 못했던 1백30톤(1일양)의 물을 고가수조를 이용하여 더 생산할 오로써 도서관 완공 후 늘어날 물수요에 대비하여 전관에 원활한 물공급을 할 수 있게 된다.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 7면

경희학원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에 즈음하여

"21세기를 준비하는 경희의 힘찬 발걸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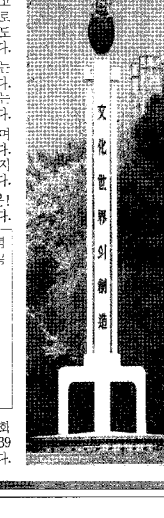
우리 경희인들은
개교 45주년을 맞이하여 남다른 감회에 젖습니다.
그것은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교시아래 온갖 어려움을 헤치고
불퇴전의 경희정신 하나만으로
반세기의 짧은 역사에도
오늘의 경희를 이룩해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경희를 가르켜 해외언론에서는
'극동 교육사의 기적'이라 극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21세기의 위대한 경희를 그리며
'제2의 웅비'를 준비할 것입니다.
개교 50주년이 되는 1999년까지
경희발전을 위해 100억원을 모금하고자 합니다.
경희가족 여러분!
하나의 력동이 되어 경희의 명예를 지킵시다.

경희 발전의 위기적 전환점이 될 개교 50주년 기념사업기금과 경희인의 오랜 숙원사업인 대강당 완공을 위한 모교 발전 기금은 접수하고 있습니다.
경희가족의 성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은행 : 010-01-0618-642
신한은행 : 17301-2710-209
농 협 : 031-01-396711
우 체 국 : 012336-0025556

예금주는 각 계좌명 공히 '경희대학교'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45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961-0025·6 FAX 965-0939
로 문의바랍니다.



◇명예고문
안호상 윤치영 최태섭 김병준 방상훈 조용은 작정심

◇고 문
안희연 신태근 박양원 최두호 강성국 김정현 손중근

◇회 장
김 정 : 이병희

◇부 회 장
이승우 최준식 최홍원 차후모 백인걸 김병일 이석주 정동성 손원수 신원철 우상구 김기성 김기홍 김기웅 김기일 김기수 김기동 김기근 김기홍 김기웅 김기일 김기수 김기동 김기근 김기홍 김기웅 김기일 김기수 김기동 김기근